

# WIPO, 새 방송 저작권법 제정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저작권접권을 부여하는 국제협약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와이어드뉴스에 따르면 현재 WIPO에 접수된 초안은 방송사업자에게 녹화, 재전송, 방송신호 재생 등에 관한 법적 권한을 50년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부분 나라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권리는 실제 콘텐츠의 저작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방송신호에 대한 권리만 인정한다. 오는 11월 열릴 WIPO의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위원회(SCCRR)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이 국제협약이 통과되면 200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권리가 시청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디지털 인권 보호단체인 전자프린터재단(EFF)과 공유권연맹(UPD) 등은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신호와 관련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널리 공유되어야 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FF 유럽 담당자인 코리 닥터로우는 미국 특허청이 방송사업자 관련 권리에 웹캐스팅까지 포함시키는 것, 권리의 적용대상이 방송을 볼 수 있는 모든 기기로 확대될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 북한, 지적재산권자에 30% 이익 배당

북한은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권자에게 3년 시한으로 이윤의 30%를 배당하고 있다고 일본의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지적재산의 유통과 관련한 조치가 취해진 결과, 생산에 도입된 과학기술이 이윤을 내면 이익의 30%가 과학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전했다. 또 '70대 30의 비율에 의한 이익환원은 3년 시한부'라며, '과학기술은 반드시 실리를 낳게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개인 지적재산권 개념을 도입하고 과학기술 도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알려졌다지만, 지적재산권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 배당률과 기한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가 소유로 규정해 이의 사적인 매매를 철저히 금지해 오다 최근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유통까지 허용하는 새로운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전자업계 청색 레이저 일제히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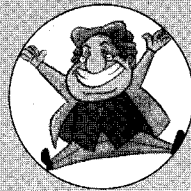
NEC, 도시바, 소니 등 일본의 전자업체들이 차세대 DVD 리코더의 핵심부품인 '청색 레이저'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을 밝혀 화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니치아화학공업이 독점해온 청색 레이저 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NEC 일렉트로닉스, 도시바, 소니, 산요전기 등은 청색 레이저를 자체 개발, 조만간 이 시장에 진출키로 했다고 전해진다.

NEC 일렉트로닉스는 자회사인 NEC 화합물다바이스를 통해 청색 레이저 양산 기술을 확보, 내년 초 실험 생산에 들어간다. 또 생산 자회사인 NEC 칸사이도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시바 역시 청색 레이저를 개당 5천엔 정도에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내년 초 생산을 개시, 자사 차세대 DVD 리코더에 장착할 계획이다. 마쓰시타 전기도 내년에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마쓰시타는 지난 7월말 출시한 DVD리코더에 니치아화학공업에서 조달한 청색 레이저를 사용했지만 내년 출시 예정인 제품에는 자사 청색 레이저를 장착하고 가격도 크게 내릴 방침이다.

소니와 산요전기는 독자 개발한 청색 레이저의 조기 양산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이미 복수의 DVD 리코더 업체를 대상으로 실험 출하를 시작했으며 샤프도 독자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소니는 니치아화학공업과 상호 라이선스를 공개하는 쪽으로 교섭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바, 산요 등은 순수 독자기술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라 향후 상품화 과정에서 니치아화학공업과 별도의 교섭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화로 보는 발명·특허 이야기 창업자산 '지식재산권' ①

# 특허와 Know-How는 어떻게 다른가?

감수/오해정 글/왕연중 그림/김민재

